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담론 조성 필요성 연구*

안영숙**

I. 서론

본 연구는 분과학문으로서 ‘축제학’ 정립이 문화콘텐츠 학문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축제학 개념 정의, ‘학’으로서의 축제학 담론은 시대적 요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축제 연구 토양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축제를 fete 내지는 festival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제영역을 비교적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구별하여 연구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와는 달리 축제 연구 패턴이 정착되지 못했다. 축제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 문화콘텐츠학에서는 축제학의 하위 문화콘텐츠 분류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임.
(NRF-2020S1A5B5A17087887).

**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강사

특히 한국축제는 향유 방식에서 외국 축제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정서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국의 다양한 이론에 의지해서 한국축제의 본질을 이해해 온 부분이 있다. 물론 전통축제라 할 수 있는 강릉 단오제나 동해안, 남해안 별신굿 류 등을 중심으로 축(祝)과 제(祭)가 지닌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 축제와 한국축제는 공통분모도 있고 이질적인 요소도 많은데 이것은 그다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면이 있다. 축제 요소나 성격을 결정하는 것 중 지리적 특수성, 사회 내 관계, 역사적 사건이 지역 정서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신념이 된 것이 축제의 성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한국축제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한국축제의 고유성 내지는 축제다움에 대한 다각적인 담론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축제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지만 유사한 형태의 축제 남발과 학계에서 축제를 다루면서도 분과학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문화를 다루는 학문에서 축제는 ‘행위문화’의 한 갈래이며 삶의 총체라 할 수 있어서 하나의 분과학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메타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축제학’으로서의 입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축제가 ‘축제학’이라는 독립적인 분과학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문화콘텐츠학이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학문분과에서는 축제와 관련된 담론을 축제의 본질뿐만 아니라 축제의 경제성까지 검증하는 것이 정착된 상태이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문화콘텐츠학자가 설치된 학제권에서는 예상과 달리 축제학 담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다양한 영역과 많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축제학 담론에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접하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일련의 한계는 다른 학문영역 전공자들이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콘텐츠학 전공자들이 축제를 다룰 때 변별 지점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히 축제를 대하는 학문 간의 영역 다툼을 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그 내용물을 다루는 문화콘텐츠학이 축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자체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학 정립을 위해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된 대학 내 학제(學制)에서의 교육 현황 파악, 연구 중심의 대학원 진학생들의 전공 연계 등을 조사하여 연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축제’라는 용어가 정착하면서 실제 축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를 통해 얹게나마 고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축제학 담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측면에 주력하였다. 첫째, 축제를 인문학에 기반한 문화콘텐츠학의 영역에서 토대학문으로 삼을 수 있는가? 둘째, 한국축제의 역사에 관한 연구 일부는 외국축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태동한 축제를 기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가? 셋째, 축제학 범주에 한국축제만을 기반으로 축제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가? 이 세 측면은 인문학적 기반 위에서 축제학이 어떤 길을 축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고,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축제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과정에서 보인 다양한 결들을 통해 한국축제만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국내 대학 중 문화콘텐츠학과 개설 대학의 축제학 관련 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학문체계 안에서 축제학을 다룰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한국의 현대축제 시작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하여 축제학 담론의 적극적인 확대 방법론을 실제 축제를 통해 마련한다. 담론의 체계화 및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축제 중 하나에서 그 방향성을 모색한다. 본문에서 다루는 개천예술제는 한국에서의 현대축제 시작, 목적, 축제의 관변화로 인해 어떤 것을 잃었고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외국에서의 현대축제 시작점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세계 축제사 이해라는 면에서 현대축제는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7년 프랑스 아비뇽과 영국 에든버러에서는 의미 있는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아비뇽축제는 연극 장르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예술축제인 잘츠부르크 축제(1920) 등을 잇는다. 이에 반해 에든버러축제는 아비뇽축제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 장르를 축제 대상으로 삼고 문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축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축제를 통해 유럽문화의 부흥이라는 거시적인 목적과 축제 향유 대상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축제 패러다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국내 축제 역시 이 흐름과 유사한데 예술이 한때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적이 있었고 개천예술제는 서제에 “궁정에서 피는 꽃”으로 여겨졌던 문화예술이 대중화되어야 함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여 초기 형태의 문화산업도 발전했다. 특히, 진주지역에서는 작가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제조직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설창수는 자신이 직접 계가를 지어 계모임에서 함께 불렀으며 작가가 구매자들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개천예술제를 예로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의 축제 예시를 통해 한국의 초기 현대축제가 어떤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문제가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확인해서 우후죽순처럼 축제가 생겨나면서 관통한 문제를 발견하여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시는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 위상을 세우는 기초 작업이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 담론을 주도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콘텐츠학 관련 대학원 진학 연구자들의 과거 전공 이력과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현대축제가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했다는 점에서 외국의 현대축제 출발지점과 그다지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의 환

1) 안영숙 (2021). 한국현대축제의 효시 개천예술제 재맥락화로 축제이론을 세우다. 서울:지식과 감성, 282.

경에 맞는 축제이론을 정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문화콘텐츠학이 축제학을 다루는 이론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축제학 정립을 위해 국내 대학에서의 축제학 관련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이것의 연장이며 축제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여 문화콘텐츠학의 영역에서 축제학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제시하는 담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II. 학제 영역에서의 축제와 축제학 위치

1.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축제학 담론의 다양한 논증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과학문으로서의 축제학 입지를 세우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축제이론서 및 선행연구 자료를 먼저 검토한다. 축제이론과 관련된 비교적 최근 연구로는 류정아의 『축제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축제이론의 분석을 호혜적 관계 형성, 성과 속의 변증법적 이해, 유희적 미학의 완성, 연행이론의 구체화로 분류하여 제시한다.²⁾ 서양학자들의 이론에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해 축제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축제이론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연구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선풍의 연구인데³⁾ 그의 연구는 축제이론 제시보다는 전국 축제를 아카이빙(archiving)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유럽사회문화연구소는 연극연출 이론을 통한 축제 기획 이론의 정립과 적용에 관한 저서를 발간했다.⁴⁾ 비록 파편적이기는 하지만 학문의 영역에 편입되어 실습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2) 류정아 (2013). 축제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 김선풍 (2000).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松泉 金善豊 博士 華甲紀念論叢, 서울: 월인.

4)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0). 연극연출이론 번용을 통한 축제이론 정립,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으로 구성한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다. 한편 이상룡은 2005년 “축제학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 창출을 위한 학제적 접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훈 역시 2004년에 “축제 체험 속성 모형 개발: 문화적 합의 이론”을 중심으로 아젠다를 수행해 축제 체험 과정에 필요한 문화적 요소를 고민하여 학문으로서의 축제학 실체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축제학으로 정립되지는 못했고 관광영역에서 축제를 이해하는데 더 큰 힘이 실린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문화콘텐츠학에서 축제학 담론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는 한국축제만으로 축제학 정립의 이론적 틀을 역사, 공간, 주제, 문화로 제시한 안영숙⁵⁾을 들 수 있다.

축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지속해서 고민한 연구는 이상룡, 남덕현 등의 축제와 문화적 본질, 축제 정책과 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⁶⁾ 이들의 연구는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6개 축제를 대표축제로 보고 분석했는데 축제에 반영되는 지역성이 축제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축제학이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축제학 담론 구성과 유사한 맥락의 연구 중 김정현(2017)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모형 개발”을 시도하여 지역축제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요한 담론을 조성⁷⁾했다. 진인혜(2006)도 “축제 정책과 지역 현황: 축제학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을 위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축제이론 정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련의 연구는 ‘축제학’을 분과학으로 정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축제학이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잡는데 필요한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쉽게도 현재의 문화콘텐츠학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담론은 다양화하지 못하다.

5) 안영숙 (2021). 앞의 책.

6) 남덕현, 이현식, 김미성, 진인혜, 진대현, 조성에, 전동열, 최경은 (2006). 축제와 문화적 본질. 서울: 한국연구재단.

7) 김정현 (2019). 축제참가자의 특성이 결속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179-199.

최락인은 지역문화 축제의 기능 중 하나가 수익성에 있다고 보고 “경제가 치 창출에 필요한 합리적인 모델 개발”⁸⁾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축제에 연구를 집중하기보다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여 축제 연구는 일회성에 그쳐 축제학 담론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지역축제나 테마가든 설계에 필요한 DB 구축을 제시한 김수연의 연구⁹⁾는 지역의 생물 환경을 활용한 축제의 지속성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 소재에 관한 연구가 관광영역을 넘어서 자연환경 내지는 식물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을 통해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제시하고 심미적인 체험을 가능”¹⁰⁾케 하는 축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축제가 외국축제와 변별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들은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서양의 디오니소스 축제나 카니발 개념에서만 한국축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으로 본 연구가 주안을 두고 있는 축제학 담론에 필요한 축제사의 분류 연구 역시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이전 축제는 제외되어 있다. 이훈, 김미정(2011)은 한국 축제사 연구 중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살핀다고 하면서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축제¹¹⁾를 다룬다.

선행연구의 일부 한계는 결과적으로 한국축제의 역사와 흐름에 관한 이해를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한정하고 연구도 이 영역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축제분석 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축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학이 축제학을 다루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문

8) 최락인 (2011). 지역문화 축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 155-181.

9) 김수연 (2012). 지역 어메니티 자원으로 지역축제 및 식물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분석.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5(3), 201-207.

10) 유현주 (2017). 도시에설로서의 미디어 파사드- 문자, 이미지, 맵핑, 혼합현실. 인문과학 109, 91-92.

11) 이훈, 김미정 (2011). 한국 축제사-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 481-499.

화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가속화되었던 상황¹²⁾ 속에 한국축제는 전통축제 → 근현대이행기축제 → 현대축제 중심으로 흘러왔다. 본고는 축제학 연구 범위를 이것에 한정하며, ‘학’으로서의 축제학 가능성을 문화콘텐츠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한다. 연구모델로는 지역문화 전반을 축제 대상으로 삼았던 개천예술제이며 축제학 역사 이해의 기초로 삼는다. 지역축제를 연구 사례로 삼음으로써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를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고 담론 조성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축제사 연구와 이론정립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며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발전해 온 한국축제를 ‘축제학’이라는 분과학으로 다루는 토대가 될 수 있겠다.

2. 문화콘텐츠학에서의 축제 인식과 축제학 위치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축제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는 것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대표적인 문제로 축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역문화 이해를 들 수 있다. 특히 인문학적 토대 위에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지역성 상실과 축제 자체의 정체성 약화,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모델 개발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겠다. 이론 중심의 문화콘텐츠학계와 현장성을 중요시하는 축제 현장 간의 대화 부족¹³⁾으로 인한 담론 마련이 어려운 이유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특정 지역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기에 학문영역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축제가 하나의 학문영역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그것과 연관 있는 학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으로서의 축제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학제 안에서 축제학을 다루는 영역을 살펴보면 관광학, 경영학, 문화예술 영역, 도시개발 관련 학이 주축이다. 즉, 문화콘텐츠학의 범주에

12) 신승환 (2019).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 인문과학 116, 169.

13) 이상섭 (2008). 인문학의 전망: 대화를 위하여. 인문과학 87, 1-18.

서도 한국축제를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축제학 정립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학계 축제 연구를 파악해 본 결과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1930년대 이전의 전통축제 연구,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진주유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정부가 우수축제라고 판단한 축제 중심의 현대축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이 둘 사이에 위치한 시대적 접이시대 축제는 학계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1931년 등장한 춘향제, 개천예술제(1949)나 백제예술제(1955), 호남예술제(1956), 신라예술제(1962) 등은 한국의 초기현대축제라 할 수 있으나 기초연구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학 논의가 가능한 박사학위 연구는 전무 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2020년 제1회부터 기록으로 남긴 개천예술제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축제이론을 제시한 박사논문 한 편이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다가 축제학 논의에 필요한 축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나 활용방안도 관광학 관련 학회가 주도하고 있고 문화콘텐츠학은 그것에 기반하여 콘텐츠화를 모색하는 경향이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것은 문화 전반을 다루는 문화콘텐츠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고가 전국 문화콘텐츠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축제나 축제학의 연관성을 조사한 이유는 어떤 학문의 분과영역에서 축제를 다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축제학이 하나의 학문체계로 자리 잡는 데는 축제사 연구가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사 연구 방법을 조사한 결과 문화콘텐츠학 자체가 연구 성과를 독창적으로 제시한 것은 찾기 어렵다. 다만 다른 분과학에서 축제사 연구 현황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영역 역시 기존의 한국축제 연구가 주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이원화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양 축제를 잇는 지점에 대한 정보나 축제사 이해는 부족하다. 이는 역으로 문화콘텐츠학이 축제사를 다룰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례로 개천예술제를 다음장에서 다루면서 문화콘텐츠학에서의 축제사 논의 담론 가능성을 타진한다.

왜 개천예술제인가? 개천예술제의 경우 경연과 공연에만 치우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두 영역에서 벗어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난장 등 기타 프로그램을 1회 때부터 따로 구성했다. 오늘날 주로 이해하는 프린지 형태의 축제가 1949년부터 진행되었다. 그 결과 축제의 역사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축제향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개천예술제의 부분 프로그램이었던 유등축제가 독립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축제향유자가 축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축제 중심의 축제학 정립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발견, 축제 현장에서의 기회 요소, 위험 요소, 장점 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 담론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의 가치를 인문학에 기반한 정신적, 물질적, 문화적 측면 모두에서 다루어서 편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분과학에서도 이것을 다루기는 한다. 그러나 문화콘텐츠학의 영역에서는 여타 분과학과 다른 관점으로 축제의 문화적 가치까지 다루기 때문에 축제의 효용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체성까지 다룰 수 있다. 아울러 축제학 정립에 필요한 인문학적 정보는 물론 경제학적 정보력, 공학적 정보력, 정보통신 정보력 등을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다. 축제학 역시 일련의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콘텐츠학은 축제를 분과학으로 체계화할 토양이 충분하다.

3. 문화콘텐츠학 범주에서의 축제사 인식

축제학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피는 이유는 문화콘텐츠학 영역에 맞는 축제학 담론 근거를 찾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문화콘텐츠학의 다양한 영역은 지역문화 자원의 하나로 축제를 인식한다는 점, 축제사 자체에 관한 고민이 단순히 축제의 경제가치 창출을 위한 방법론 제시에만 두지 않는다는 점,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축제학을 학문적 가치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 등에

서 적어도 축제 자체나 축제학 논의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쉽게도 20여 년간 축적해 온 문화콘텐츠학 자체의 역사성이 이 세 가지 측면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본 연구가 논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아카데미 위주의 대학교육에서조차 축제의 관광적 기능 중심, 축제의 경제성에 집중하는 현실의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축제를 관광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편승, 축제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우수축제, 최우수 축제 등으로 나누는 국가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화콘텐츠학 범주에서 축제학을 정립하고 담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학이 갖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콘텐츠학 자체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발맞추어 등장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개최되는 축제와 그것의 역사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개천예술제의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여 문화콘텐츠학에서 축제학이 정립되지 못한 원인을 찾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 맞는 체계를 적용하여 등장한 문화콘텐츠학은 한국 축제를 다른 학문체계가 세워 놓은 전통축제, 현대축제의 이분법적 이해에 따라야 하는가? 본고는 축제 역사에도 점이지대가 있고 문화콘텐츠학은 이 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콘텐츠학 자체도 학문적 점이지대 성격이 강하기에 학문체계로 축제학 이론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축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인문학 기반이나 공연예술 기반, 엔터테인먼트 기반이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축제 역사에 대한 이해 역시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점이지대를 세우고 그 지점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문 간의 통섭 내지는 융복합적 성격이 강한 특성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 맞는 축제이론이 필요하다. 다른 분과학에서 소원하게 다루는 근현대이행기 축제를 축제학의 점이지대로 삼고 한국축제의 역사를 전통축제 → 근현대이행기 축제(초기현대축제)

→ 현대축제로 정립할 필요도 있다. 학제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이 시기에 시작된 실제 축제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는 1949년 개천예술제가 태동하면서 현대적인 개념의 축제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1931년 춘향제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진주 논개 제사의 영향을 받아 권번 출신 기생들이 제관(祭官)을 맡으면서 시작된 전통축제의 연장이다. 태동 당시부터 제의 기능이 강조되었고 특정 계층만 축제 진행에 참가하여 한국의 현대축제 시초라고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축제학 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축제가 최초로 개최될 당시의 목적, 의도, 행사 참여자, 프로그램 등을 기록한 기록물인데 춘향제는 논거로 삼을 기록물이 부족하다. 개천예술제 이후에 태동한 축제¹⁴⁾도 빅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개천예술제는 이 모든 기록이 존재한다.

물론 개천예술제 역시 한국축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축제와는 다소 다른 결이 발견되는 지점이 있기는 하다. 전통축제의 제의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서제퍼포먼스를 기점으로 그해의 축제가 시작된다. 그러면서도 음악, 사진, 연극, 문학, 미술, 무용 등 예술 장르를 경연과 공연 형태로 진행한다. 즉, 에든버러축제처럼 문화예술을 전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원(祈願)의 기능을 유지한다. 그렇기에 개천예술제는 전통축제와 현대축제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축제사 이해라는 측면에서 개천예술제를 엄밀히 구분한다면 한국 근현대이행기의 초기현대축제로 볼 수 있는데 문화콘텐츠학이 갖는 학문적 점이지대적 성격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문화콘텐츠학에서 제시하는 축제학 개념은 문화라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 관광학에서 제시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것도 독일 관련 문화연구¹⁵⁾, 프랑스 관

14) 이봉석 (1999). 신라문화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주연구 8, 160- 170.

15) 천현순 (2010). 독일의 축제문화와 지역의 정체성-퀵른 카니발축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런 문화연구⁶⁾, 러시아 문화연구⁷⁾ 등에서 제시한 축제이론가들의 축제 개념 정의, 축제의 역사성, 방향성 제시 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문화콘텐츠학에서 축제학을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분과학이 축제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연구를 진행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여타 분과학에서 주장하는 축제 논의를 정식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학문적 태도가 필요하다.

III. 학문으로서 축제학의 현재 위치

1. 대학 중심 문화콘텐츠학과 내 축제의 학제 현황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학이라는 영역이 축제를 얼마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부 대학 내에 개설된 문화콘텐츠학과 교과를 살폈다. 특히 교과 영역에서의 축제학 개설 여부를 파악하였다. 교과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적 가치와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문화콘텐츠학과 개설은 사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립대학일수록 학과 개설에 시의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절차와 시스템이 유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시대가 원하는 분야를 학문영역에서 다루는 실천력이 국공립대학보다는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교과 개편과 관련하여 국공립대학보다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된 제도적 장치가 문화콘텐츠학 관련 과목 개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 469-484.

16) 복성규 (2012).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조성애 (2005). 축제와 신화의 서사구조: 축제의 거인성과 거인 신화-유럽축제와 한국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77-294.

17) 박건용 (2004).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문학의 카니발화. 독어교육 31, 297-305.

설을 좀 더 쉽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여타 학문영역에서 축제학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대학의 정규 교과목이나 학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 실험과 제작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팹랩(fablab) 설치가 쉽게 허용되지 않는 대학의 아카데미 환경의 보수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문화콘텐츠학과 연관이 있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 중 연구자가 표본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학이다.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많지만,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콘텐츠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축제를 관광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학’으로서의 축제학을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목포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청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다.

<표 1>에서 보듯 건국대학교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과대학 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¹⁸⁾ 이는 문화콘텐츠학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문화에 다양한 가치를 입힌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축제학이라는 단독 이름으로 개설된 과목은 없으나 ‘축제 연기표현 실습’, ‘축제이벤트 산업론’ 등 축제와 관련된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다. 총 38과목 중 축제와 관련된 것은 두 과목이기 때문에 축제를 다루는 비중이 높다고 보기에 는 부족하다. 이에 더해 축제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과목 개설보다는 축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축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해 보인다.

경남의 사립대학인 경남대학교는 문과대학 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

18)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3. 10.). <https://culturecontents.konkuk.ac.kr/main.do>

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콘텐츠 창작 및 제작을 특성화하였기 때문에 교과목에 축제와 관련된 교과목은 보이지 않는다.¹⁹⁾ 즉, 공연예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축제의 현장성을 공연예술 관점에서 평가하고 축제학의 정립을 실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해 보인다.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비교적 빠르게 교과 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축제학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콘텐츠 교육에 집중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접근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연예술의 전문성에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국립대학이면서도 인문대학 홈페이지 학과 소개란에는 연계 과정 학과 소개가 없다. 즉, 학과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데 대학원에 협동과정 형태의 문화콘텐츠학과가 존재하고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홈페이지에 학부 연계전공으로 문화콘텐츠학과를 소개한다. “축제학과 놀이”라는 교과목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고²⁰⁾ 명칭으로만 보면 ‘축제학’ 담론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속무용학과가 주관하고 있다. 주관학과의 특성상 학문으로서의 ‘축제학’ 토대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민속 또는 연희와 관련된 문화에 기반한 축제의 현장성을 살린 실제 사례 중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즉 축제학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나 담론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민속이나 춤과 관련 있는 주관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축제의 현장성 중심 교육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경우 문화콘텐츠학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축제학’ 정립을 논의할 때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학’으로서의 축제 기반을 인문학적 담론에서 마련하고자 할 때, 문화콘텐츠학과가 주축이 되어 축제를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론과 현장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수 있으나 제약이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문화콘텐츠학과 자체가 주축이 되어 한국축제의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

19)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3. 2). <https://www.kyungnam.ac.kr/sites/cc/index.do>

20) 경상국립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9. 1). <http://culcon.gnu.ac.kr>

근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의 보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문화콘텐츠학과에 독립적으로 축제학 담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대학의 경우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진들이 인문대학이나 학내 다른 학과를 원소속으로 하고 원소속 학과에서 다루는 일부 교과목을 문화콘텐츠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문 간 교류가 원활한 장점이기도 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학과 자체가 힘을 갖고 독립적으로 축제학 정립을 위해 관련 교과목을 확대·개설하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다른 분과학문이 축제학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틀을 마련하고 입지를 다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화콘텐츠학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전국의 대다수 대학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각 대학 내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축제학을 논의할 수 있는 과목을 여러 단계로 제시하고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학교는 문화창의학부에 미디어 문예 창작 전공과 문화콘텐츠 전공을 두고 있다. 문화콘텐츠 전공은 단계별로 교과목을 특성화하여 전문성 기반의 탁월한 실행 역량, 미래 안목의 융합적 사고 역량, 혁신성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공감력 기반의 효율적 의사소통 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축제와 관련된 교과목은 혁신성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영역에 “관광 및 축제콘텐츠 개발 및 운영 과목”이 개설²¹⁾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이 축제 현장의 제문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운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내 동북아 문화산업 학부 소속으로 문화콘텐츠개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²²⁾ 축제나 축제학과 관련된 과목 개설이 전무하다.

목포대학은 토대학문 교육을 비교적 유지하려는 국립대학 중 한 곳이면서

21)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9. 8). <http://sejong.korea.ac.kr/mbs/home/mbs/cul/>

22) 광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9. 15.). https://www.kw.ac.kr/ko/univ/social08_5.jsp

<표 1> 국내 일부 대학교의 문화콘텐츠학과 축제학 교과목 개설 현황

문화콘텐츠학과 개설 대학교	축제학 관련 과목 개설 여부	교과목명
건국대학교(사)	0	축제 연대표현 실습 축제이벤트 산업론
경남대학교(사)	X	-
경상국립대학교(국)	0	축제와 놀이
고려대학교(사)	0	관광 및 축제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광운대학교(사)	X	-
목포대학교(국)	0	관광 및 축제콘텐츠 기획
상명대학교(사)	X	-
상지대학교(사)	0	지역축제 기획 실습
서경대학교(사)	X	-
아주대학교(사)	0	축제기획과 연출
인천가톨릭대학교(사)	X	-
인하대학교(사)	X	-
전남대학교(국)	X	-
청주대학교(사)	X	-
한양대학교(사)	X	-

문화콘텐츠학과를 독립된 학과로 개설하였다.²³⁾ 연계전공을 고수하는 일부 국립대학교는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38과목 중 축제와 관련된 교과목은 “관광 및 축제콘텐츠 기획” 한 과목이다. 목포대학교 자체가 섬 문화를 특성화하여 10여 년 이상 전국해양학자대회를 개최하여 학문의 통섭, 인문학의 다양한 범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신생 학과이지만 앞으로 대학 단계에서부터 축제학 담론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상명대학교는 역사콘텐츠학과 내에 문화콘텐츠 연계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축제나 축제학 관련 교과목은 발견하기 어렵다.²⁴⁾ 문화콘텐츠학을 선도해 온 대학 중 한 곳이고 시대적 흐름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가운데 축제콘텐츠를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으로는 자칫 대학

23) 목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10. 1.). <https://mnumc.mokpo.ac.kr/mnumc/index.do>

24) 상명대학교 (2021. 8. 20.). <https://history.smu.ac.kr/history>

생들이 축제학의 다양한 영역을 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지대학교는 인문사회대학 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²⁵⁾ 전학년 교육 과정 프로그램에는 축제와 관련된 교과목을 찾기 어렵지만 교육 과정 로드맵에 “지역축제 기획 실습”이 개설되어 있다.²⁶⁾ ‘지역’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축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기획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축제를 다양한 시선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다.

서경대학교의 경우 인문과학대학 내 문화콘텐츠학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부 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존재한다.²⁷⁾ 그러나 이 대학 역시 축제와 관련된 교과목은 전무하다. 이주대학교는 인문대학 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²⁸⁾ 전공 선택과목으로 “축제기획과 연출”이 개설되어 있다. 축제의 현장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축제의 실용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교과목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가톨릭대학교도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나²⁹⁾ 축제 관련 과목은 전무하다.

인하대학교는 문과대학 내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³⁰⁾ 역시 축제와 관련된 교과목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졸업 후 진로는 “축제콘텐츠 창작자 및 스토리텔러”진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창작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축제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과목 개설 현황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이 교육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남대학교는 문화콘텐츠학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문화사회과학대학 소속

25) 상지대학교 (2020. 10. 3.). <https://www.sangji.ac.kr/mooncon/index.do>

26) 다만, 2020년도와 달리 2021학년도에는 축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출처: https://www.sangji.ac.kr/mooncon/sub02_01.do

27)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0. 9. 10). <https://cc.skuniv.ac.kr/>

28) 이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0. 8. 16.). <http://culture.ajou.ac.kr>

29)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0. 9. 26.). <https://ac.iccu.ac.kr/default.php>

30)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0. 9. 20.). <https://culturecm.inha.ac.kr/culturecm>

이다.³¹⁾ 특이한 것은 문화콘텐츠학부이면서 멀티미디어와 전자상거래 전공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축제 관련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시대상을 반영한 교과 과정 개설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축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마을마다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국립대학에서는 찾기 어려운 문화콘텐츠학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을 살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축제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국립대학에서 축제 관련 교과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대학교는 인문대학 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역시 축제 관련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³²⁾ 한양대학교는 문화콘텐츠학과를 개설했으나 문화콘텐츠학과에 축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관광학과에 축제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³³⁾ 축제를 관광학의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문화콘텐츠학의 관점에서 축제학 정립에 필요한 기초 이론 논의와 담론 형성을 기대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대학 과정에 개설된 문화콘텐츠학과에서의 축제학 관련 개설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축제학과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콘텐츠론”처럼 ‘축제론’ 자체를 다룬 대학은 아예 없었으며 그나마 개설된 분야도 축제기획과 연관 있는 현장 중심 과목이다. 그렇다고 하여 축제 현장에서 축제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축제사나 실제의 축제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다. 축제 기획에 주안을 둔다고 하더라도 축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축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가 하나의 학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어려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31)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9. 15). <https://ccd.jnu.ac.kr/ccd/index.do>

32) 청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0. 11. 8.). <https://www.cju.ac.kr/cjccs/index.do>

33)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1. 10. 1.). <http://contents.hanyang.ac.kr>

문화콘텐츠학과 단독으로 축제학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관광학이나 예술관련 학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또한 축제를 하나의 콘텐츠로 보되 기초학문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크게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학이 취업 위주의 교육 중심이라고 이해하면 기초학문 관점에서의 교육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련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문화콘텐츠학의 학문영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적어도 대학에서부터 기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콘텐츠학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축제학 관련 학회나 관련 연구기관 등이 주도하여 ‘학문으로서의 축제학’을 체계화할 수 있는 ‘축제론’ 담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 중심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내 축제학 현황과 방향

대학의 경우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대학생들이 축제학 논의를 접할 기회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다면 연구 중심의 대학원은 어떤가? 다음 표를 통해 현황을 유추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학원 과정은 대학과는 달리 축제학의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대학의 실태와 어떤 점에서 다르며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지 파악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축제 전문가들이 대학원을 진학하여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하다는 점에서 축제학 개설 여부는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정리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전국이 축제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탄탄한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으나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적 테두리 안에서의 축제학 위치는 미미해 보인다.

눈여겨볼 것은 대학 과정과 대학원 과정 간의 연계 부분인데 건국대학교 대학원은 협동과정으로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 과정과 동일한 과목인 축제 연기표현 실습, 축제이벤트 산업론이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다. 대학 교육과의 연계가 비교적 자연스러워 축제학을 문화콘텐츠학이라

는 학문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쉬워 보인다.

반면에 경남대학교 대학원은 문과대학 내에 독자적으로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신생 학과이며 석사 과정에서 축제학을 독립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공간/공연기획 과목에서 축제영역을 다루게 되어 있어서 교수가 어떤 커리큘럼에 주안을 두는가에 따라 축제영역을 다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 대학의 경우 공연예술 영역을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특성화했기 때문에 축제학 역시 공연예술의 관점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건국대학교처럼 일반대학원 인문대학 내 협동과정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축제와 문화콘텐츠”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축제이론 전문가가 지도하지 않는 한 현장의 문제 또는 기획 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대학의 경우 인문대학 내에 대학원 문화융복합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문화콘텐츠학과와 학문 유사도 일치가 거의 100%에 가까운 학과가 존재한다. 이미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K 사업 진입을 위해 문화융복합과가 개설된 특이한 구조의 대학이다. 그 점에서 양 학과 참여 교원들이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진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칫하면 교수들이 시류에 따라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학과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문화콘텐츠학과 중심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 부족, 배출되는 인력들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이 되는 대학 내 지위도 현재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도 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문화콘텐츠학 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서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정체성 및 생명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고려대학교는 일반대학원 인문·사회 계열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목으로는 ‘축제이벤트 기획론’이 있다. 이 대학의 경우 학문적 가

치로서의 축제학과 축제 기획의 이론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론과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축제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주대학교 대학원은 인문대학 내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우수축제 사례 연구” 교과목을 다루며 학부의 축제기획과 연출 교과목이 실제 사례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축제의 현장성과 이론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학 정립 과정에서 실제 축제모델에서 이론적 논의가 가능하다.

<표 2> 국내 일부 대학원의 문화콘텐츠학과 내 축제학 교과목 개설 현황

문화콘텐츠학과 개설 대학원	소속	축제학 관련 교과목 개설 여부	교과목명
건국대학교(사)	협동과정	0	- 축제 연기표현 실습 - 축제이벤트 산업론
경남대학교(사)	문과대학	X	-
경상국립대학교(국)	일반대학원협동과정	0	축제와 놀이
고려대학교(사)	일반대학원협동과정	0	축제이벤트 기획론
광운대학교(사)	-	-	-
목포대학교(국)	협동과정	0(석사)	축제 및 공연기획론
상명대학교(사)	일반대학원 인문 사회	0	축제문화연구
상지대학교(사)	-	-	-
서경대학교(사)	-	-	-
아주대학교(사)	일반대학원 인문대학	0	우수축제 사례 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사)	-	-	-
인하대학교(사)	-	-	-
전남대학교(국)	-	0	축제학 연구
청주대학교(사)	-	-	-
충남대학교(국)	일반대학원 인문대학	0	축제콘텐츠 개발
한양대학교(사)	국제문화대학	-	-

전남대학교는 일반대학원의 인문사회계열에 문화학이 개설되어 있으나 문화콘텐츠학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³⁴⁾ 인문사회계열에 문화학과를 개설하여 축제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보고 축제학 자체를 개설하였다. 문화콘텐츠학과와의 연계보다는 문화학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문화콘텐츠학부가 있으나 이 학과에 축제학을 다루는 커리큘럼은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 과정에서 축제를 통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축제학 연구 토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축제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대학 과정에서의 축제학 개설은 찾기 어려웠다. 전문가 양성과 축제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축제학 담론을 체계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의 문화콘텐츠학과도 마찬가지로 현실이었다. 현재로서는 문화콘텐츠학과 중심의 축제학 정립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문화콘텐츠학의 특성상 각 대학이 특성화 전략을 가장 많이 펼친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축제학 관련 과목이 적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축제학 정립에 필요한 담론 확산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의 한국축제 이해와 관련 있는 수업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서양 이론 위에서 한국축제를 이해하는 편이며 문화콘텐츠학과 중심으로 축제학 담론을 주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특히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축제의 경우 축제학 담론이 외국 축제와 다른 지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의 역사성도 짧아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외국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 우리의 축제를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울러 연구영역이 축제이론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외국의 축제이론가들이 내세우는 이론을 우리의 축제에 그대로 대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학계의 이

34) 전남대학교 (2021. 9.15.). <https://ccd.jnu.ac.kr/ccd/index.do>

런 현실은 한국 실정을 더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축제의 역사를 이해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해외의 축제학 담론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축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 왔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제 축제를 통해 문화 인류적인 가치까지 규정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축제에서 사육제나 카니발적 요소를 특정 이론에 적용하거나 해석하여 축제 담론을 체계화했다. 그 결과 축제학이나 축제가론이 실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축제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 한국 축제사 연구 담론 확대가 50여 년도 채 안 될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학 자체도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신생 학문이 성장한 상태이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 담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국내에서 실제로 개최되는 축제사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축제의 계보를 문화콘텐츠학 관점에서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내 축제 연구가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축제를 다루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언급했듯이 이미 관광학, 경영학, 공연예술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점을 논의의 선에 두고 한국축제의 고유성, 정체성 등을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광진의 경우 민속과 축제를 관광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했다.³⁵⁾ 문화콘텐츠학과 중심으로 축제를 담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축제만의 고유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학문적 특성에 맞는 담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학과외의 학제권에서 축제학 담론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가 철저하게 예상을 벗어난

35) 이광진 (2004). 민속과 축제의 관광적 해석. 민속원.

것을 확인하였다. 축제학의 이론적 체계를 제도권에서 다룰 때 외국 축제와 한국축제의 역사성 비교, 지리적 특수성 반영, 문화 생태적 환경 차이 인식 등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도 발견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콘텐츠학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개최된 축제 사례에서 담론을 세울 필요가 있다.

IV. 사례 중심의 축제학 정립 담론 조성 필요성

1. 초기현대축제 사례에서의 한국축제학 담론 가능성

앞선 논의는 축제학 정립이 대학교육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타 학문 분과처럼 축제학을 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였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기록물이 존재하는 현대축제 초기 사례를 통해 축제학 담론 조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지역축제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축제의 등급화, 지원금 차등 지원 정책 강화로 축제 자체의 서열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더해 축제를 통해 경제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축제 향유자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방법이 구체화 되면서 더 화려해졌다. 이것은 무분별한 축제 양산과 축제 자체의 정체성, 지역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축제 개최 목적을 상실한 축제가 많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이 정착하려면 논의의 틀과 이론이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앞서 확인했듯이 대학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기에는 체계가 부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체계성이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담론 조성에 걸림돌이 되면서 문화의 가치 이해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결국 축제는 지역 경제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남길 수 있으나 공간이나 장소에 남긴 아우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그 결과 축제학의 바탕이 되는 지

식의 공유자원으로서 축제의 문화가치는 그다지 부각하지 못했고 역사, 공간, 주체, 문화 등 지역축제의 성립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 호혜적인 기능을 공유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축제의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라 문화의 가치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올러 문화의 가치는 축제다움을 표현하는 결과물임과 동시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축제에 반영되는 메시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축제학 담론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문화의 가치를 짧게나마 언급하는 이유는 축제학 담론을 확대해서 학문영역에 다루기 위해 고민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축제를 독자적인 학문영역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한국축제를 통해 이론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많은 제약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나마 한국축제 이해의 기본 틀을 제시한 류정아는 외국 학자의 이론을 집대성하여 한국의 축제 역사 반영, 한국축제가 추구해 온 정서 표출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물론 방 제넵 등의 이론을 성과 속의 변증법에 적용하여 축제의 보편성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한국축제 이해의 이론 논의 모본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천예술제 연구를 통해 한국축제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이 이제야 제시되었고, 역사·공간·주체·문화라는 네 가지 틀로 한국축제 논의 틀을 마련했지만³⁶⁾ 이 연구를 계기로 삼아 한국의 정서와 축제 역사를 고려한 축제 담론 확산이 더 필요하다.

문화콘텐츠학 토대가 되는 대학 제도권에서의 축제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 축제학 담론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천예술제에서 담론을 마련한다. 개천예술제는 초기에는 영남예술제로 불렸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4세대를 이어오면서 정체성 약화가 큰 문제임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축제가 대부분 안고 있

36) 안영숙 (2020). 역사, 공간, 주체 통해 본 지역축제 재맥락화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는 문제라는 점에서 축제학 정립과 담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개천예술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8년에 태동한 한국민속예술제나 19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한국축제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문화예술이 대중화되는데 일조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축제를 다루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학문적 카테고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천예술제가 단지 특정 지역의 축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제사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축제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축제학 담론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의 개천예술제 위상은 문화콘텐츠학이 축제학을 정립하지 못하는 현실과 맞닿는 지점이 있다. 70여 년 이상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이것의 축제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축제사에는 축제가 개최되면서 그 자체로 축적한 역사가 있다. 1회, 2회, 3회(…)형식으로 축제 자체의 역사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축제 역사를 축적한다. 한편, 축제가 개최되면서 축제 프로그램 안에 반영하는 역사가 있다. 그만큼 축제사에는 다양한 메타포(metaphor)가 있다.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 축제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담론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또한 기존의 한국 축제사가 주로 외국의 축제사를 토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축제사 자체 범주를 정하는 데는 유익하나 한국축제만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못 된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축제가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를 수면 위로 내세워 축제학 담론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직은 한국 축제사의 계보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축제학의 골격 마련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세계의 현대축제 태동과 함께 한국에서도 함께 시작된 개천예술제를 모본으로 삼고 한국 축제학 담론을 세우는 이유다.

기존의 한국 축제사는 서양의 이론이나 축제사에 비추어 분류하여 연구했고 담론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더욱이 한국축제의 역사보다는 외국축제의 역사 연구에 더 주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양도원은 한국축제 연구자들조차 축제의 기원으로 삼는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연구해서 축제

이해의 기반을 마련했다.³⁷⁾ 그렇다 보니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 근현대 이행기에 태동한 초기현대축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기의 축제 연구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축제사 계보 정립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 시기에 태동한 축제에서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초기현대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한국축제가 독자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외국 축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축제학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를 통한 축제 이해는 중요하다. 한국만의 축제가 갖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축제학 담론에 필요한 골격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세대 중심의 축제 이해는 필요하다. 하지만 축제 향유 대상의 세대 간 축제 인식 변화양상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축제학 골격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개천예술제의 역사는 세대 개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초기현대축제가 만들어진 시기인 1세대와 이것을 잇고자 했던 2세대, 그것을 누리는 3, 4세대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축제 역사를 축적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축제사의 인식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개천예술제는 예시로 들 수 있는 근거가 많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천예술제의 경우 4세대까지 왔다. 1세대는 개천예술제 초기라 할 수 있는 1949년부터 1971년까지 활동한 세대이다. 한국 축제사에서 현대축제의 초기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현대화의 물결이 휘몰아치던 시기였고, 근대와 현대라는 과도기의 결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지키며, 또 누군가는 기린다는 측면에서 초기현대축제는 세대 간의 다양한 메타포를 담고 있다. 세대 이해를 통한 한국축제 담론의 이론적 논의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축제는 세대에 따라 향수(享受)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다르며 축제에 대한 이해도 세대에 따라 변별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것은 예술의 대

37) 양도원 (2006).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 과정 연구 1 - 어원과 고대사회의 축제를 중심으로 외 국어로서의 독일어 18, 165-186.

중화가 1949년부터 축제를 통해 시도되었고 초기 형태의 문화산업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축제학 담론 마련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축제에 거는 기대가 달라지는 요인인데 개천예술제를 통해 한국의 현대축제 역사와 변화를 주도한 세대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의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개천예술제 1세대의 다양한 시도는 축제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의 인식→저항→타협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현대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1세대는 그들의 윗세대를 위한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주 세대인 3세대에게 즐길 수 있는 축제 거리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1950년대에도 유치원생에게 발레경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웅변 프로그램과 가장행렬, 꽃놀이 등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이는 근현대이행기 한국의 초기현대축제가 어떻게 기반을 다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2세대는 개천예술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1972년부터 1990년까지 활동한 세대인데 개천예술제 중년기에 해당한다. 1세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였고 3세대가 함께 즐기는 시기였기에 그들은 개천예술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바람이나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어떻게 하면 운영 경비를 조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방법을 더 많이 고민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1세대들은 축제를 만든 권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고 3세대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축제를 향유 했다. 개천예술제의 이런 행보는 한국 축제사 연구 담론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세대는 개천예술제 제2 창세기인 1991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한 세대다. 이들은 그들의 조부모가 만든 축제를 향유한 세대이며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운영자금 마련을 고심하는 것을 본 세대이다. 축제를 일방적으로 누린 세대이고 문제를 주로 바라본 세대이기 때문에 개천예술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세대로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축제

학 담론 구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하지만 1, 2세대의 축제 운영 방식을 보아왔기에 비록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으나 축제의 가치를 인정한 세대로 그들은 자료의 아카이브에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다른 축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현대축제가 어떤 과정 속에 태동했으며 발기인은 누구이고 몇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1회부터 누가 참여하였으며 수상자와 심사자, 프로그램, 서제 진행순서³⁸⁾까지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한국의 현대축제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둔 것이다. 이것은 비록 3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은 세우지 못했지만, 기록자산을 한국 축제사의 축적으로 남긴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기록유산을 남겼지만, 문화콘텐츠가 등장한 초기의 중요성을 간과(看過)해 버린 감이 있다는 점이다.

개천예술제의 이러한 과정은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정립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축제를 문화콘텐츠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지식층이 대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학에서 축제를 충분히 다룰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축제에 담기는 콘텐츠가 중요한 흐름이고 대세임은 인식하였으나 지나치게 관광의 관점에서 축제를 평가하고 기대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축제콘텐츠를 담론으로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학자들의 관심도 받지 못해 축제 연구의 토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개천예술제뿐만 아니라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축제를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 2019년까지 왕성하게 배출되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것은 확인된다. 그런데다가 한국 현대축제 초기의 기록들을 오롯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화하지 못하여 문화콘텐츠학 중심의 축제학 정립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38) 개천예술제단 (1991). 開天藝術祭 四十年史. 개천예술제 40년사 편찬위원회.

마지막으로 4세대는 개천예술제 제 2창체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예술제에 대한 애착이나 고민이 부족하다. 즉, 다른 어느 세대보다 다양한 축제를 누렸으며 축제 자체를 고민하고 학문적인 고민을 통해 축제학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개천예술제는 비교하자면 부자였던 할아버지의 역사는 기억하는 축제이지만(1세대) 가난했던 아버지의 역사는 상기하지 못하는 축제이며(2세대) 현재를 사는 자신의 역사는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3세대) 다음 세대에 의해 잊혀져 가는 축제(4세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개천예술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초기현대축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영역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개천예술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축제가 태동한 민족 전쟁기에 활동했던 1세대들이 시도했던 학술대회 등이 2, 3세대로 오면서 폐지되었다는 점, 동일한 시기에 개최되는 유등축제의 전략과 아성에 밀렸다는 점,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학계와의 연대를 통한 개천예술제 자체의 문화가치 조명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원인은 한국의 초기현대축제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축제학의 제문제를 학문영역에서 다루면서 담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축제 연구사에서 빠져있는 이 시기의 축제들이 겪는 문제는 문화콘텐츠학과가 축제학을 미미하게 다루는 것과 유사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축제학 담론 조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축제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천예술제의 현실이 한국축제 연구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초기현대축제 연구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축제학에서 다룰 수 있는 한국축제의 계보 정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축제학이 필요한 축제사 연구가 학계에서 소극적으로 다루다 보니 문화콘텐츠학 범주에서도 축제학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다. 무엇보다 한국 축제사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이분화하여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시대 분류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

학과를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서라도 한국축제학 담론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문화콘텐츠학과 안에서 축제학 자체나 한국 축제사를 단독으로 지도하거나 접할 기회는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축제학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실제로 진행된 축제의 역사에서 한국 축제사의 계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학에서 진행되는 축제 관련 교육은 한국 축제사부터 재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현대축제에는 ‘학’으로서의 축제학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천소스들이 있다. 제도권 교육에서 축제학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천예술제의 경우 오늘날 강조하는 예술의 대중화 내지는 한국의 문화산업 태동기를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학문적 연구 가치가 있다. 거기에 더해 한국축제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수도 있어서 문화콘텐츠학이 축제사를 기반으로 토대학문으로서의 축제학 논의에 필요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

2. 문화콘텐츠학 영역 중심 축제이론 확립과 담론

본 연구는 학문적 담론으로서의 축제학 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축제학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나의 학문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축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권 교육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 부득이하게 한국축제사에서 축제이론을 확립할 수 있는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개천예술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확인하였다.

사례로 들었던 축제는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초기현대축제이다. 한국의 경우 근현대이행기인 1949년 개천예술제가 시작됨으로써 초기현대축제가 태동했다. 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삼고 음악, 연극, 문학,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축제 소재로 활용하여 경연과 공연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여 축제향유자들이 스스로 만들며 즐기는 난장

형태의 향유프로그램도 공식적으로 운영하여 현대축제의 모본(模本)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물론 춘향제가 있었지만 축제 개최 목적이나 다루는 프로그램이 제의성에 기반하는 전통축제의 맥을 잇고 있어서 현대축제의 전형이라고 강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³⁹⁾

에든버러축제나 개천예술제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지역민의 삶을 예술에 접목하면서 생활을 반영하면서 시작했다는 데 있다. 외국축제는 이것에 주목하여 연구하고 콘텐츠를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축제에는 한국축제 자체의 역사성, 축제 참여 주체의 인식, 축제 개최 공간의 상징성, 축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문화 현상 등을 재의미화하거나 축제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축제의 기반을 정립하고 담론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한국축제가 갖는 고유성 내지는 특성을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하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문화콘텐츠학 범주에서 축제학을 학문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 축제를 다룰 때 지역문화 이해의 관점, 관광학적인 관점에서 경제가치 창출 수단이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축제학을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한국축제 역사 이해와 축제 자체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체계에서 축제학을 다룰 때는 다른 영역에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더 나아가 한국축제 전반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축제학 정립이다. 이때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학문적 체계를 세울 때 무조건 외국의 사례를

3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근현대이행기는 김호일(1999)의 “한국근현대이행기 사회연구” 논의를 토대로 규정한다. 특히 근대화는 유럽의 경우 산업사회 시작과 함께 진행된 반면 한국은 외세에 의해 아주 늦게 시발되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의 현대적인 문화와 한국의 근대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으며 이 시기를 편의상 근현대이행기라고 칭한다.

통해 한국축제를 이해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한국축제의 변화양상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축제의 역사성으로 본다면 ‘축제’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처음 사용된 이후 등장한 한국의 현대축제는 외국의 현대 축제 역사와 그다지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한국에서도 현대축제가 태동한 지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의 축제 환경을 기반으로 축제이론과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한국축제 기능에 관한 관심은 아쉽게도 축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한국축제의 역사성과 계보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한국축제 자체에 대한 이해도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이분화해 온 축제 연구의 흐름과 직결되어 지금까지도 한국 축제사 계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한계가 되기도 했다. 전술한 두 문제는 결국 한국축제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살린 축제 분석 모델 부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한국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자본의 논리에 맞추어 축제 외연의 확장 속에 오늘에 이르렀고 한국축제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레 수면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축제사의 계보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문영역에서도 축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축제의 경제성에 더 관심을 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축제의 특성을 고려한 축제이론 제시와 축제담론 조성이 필요하다. 본고가 문화콘텐츠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문화콘텐츠학은 20여 년 동안 한국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터왔다. 특히 문화산업 영역은 연구와 현장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적용하여 한류를 주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경제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연구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적절한 조화 속에 문화콘텐츠학의 역할은 한국의 문화 전반에 경제가치, 문화가치, 심지어 정신적 가치까지 높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축제영역은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축제영역은 축제 만족도 조사나 수익 창출, 축제 개최가 지역 이미지 창출에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축제의 역사 역시 관광학 영역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다가 한국축제는 외국의 축제와 다른 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국학자들의 주장이나 외국의 축제가론에 기반해서 이해해 온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 한국축제 역사도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선을 그어 연구를 진행해 온 면이 있다. 그 결과 한국축제의 고유성, 축제다움, 정체성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국에서 태동한 학문영역인 문화콘텐츠학이 한국축제를 다루어 이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축제학과 그 담론을 다룰 때가 된 것이다.

축제학이 독립된 분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논의의 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한국축제가 하나의 학문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문화콘텐츠학의 범주에서 축제가 학계의 담론을 전폭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초학문으로서 축제학을 다룰 수 있는 대학 내 문화콘텐츠학과에는 축제학 관련 과목 개설이 없다시피 했고, 연구를 통해 축제학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그 결과 ‘학’으로서의 축제학을 문화콘텐츠학에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 부득이하게 근현대이행기에 태동한 축제를 통해 축제학 담론 필요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환경은 결국 한국축제 연구의 계보를 세우는 데도 한계로 작용한다.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를 탈피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학과로 인식된 현실을 탈피하는 노력이 학문의 본질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는 문화콘텐츠학과 자체가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서라도 축제학 담론을 자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근현대이행기 축제와 그 기록을 기반으로 축제학 정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축제가 성공하면 그것을 모델

로 삼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향으로 인해 유사축제가 남발되는 현실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 시작된 학문으로서의 문화콘텐츠학이 축제학을 하나의 학문분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한국축제의 역사에서 축제학의 기반을 다지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제 안에서 축제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도 이론과 실용적인 부분을 공평하게 다룸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기반을 중심으로 축제의 확장성을 담지할 수 있어야 좀 더 한국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들로 채우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학에서도 축제를 하나의 학문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축제가 하나의 학문영역에서 독자성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대학교육에서 축제를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고 다루어야 ‘학으로서의 축제학’이 정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문적인 담론으로 확산하는 데는 대학의 제도적 문제, 축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영역에서의 편파적인 연구 등의 제약이 따랐다. 하나의 학문으로서 한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축제학’ 정립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축제학을 응용학문 내지는 인문학계의 실용학문이라 일컫는 문화콘텐츠학 영역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는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축제를 하나의 콘텐츠로 보고 그것이 지닌 아우라 내지는 정체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방법론을 대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축제의 역사 흐름을 정립하고 외국 축제사를 통해 한국축제를 이해해 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축제를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론을 비롯한 담론으로써 학문적 가치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문화 영역 중 기초학문에 속하는 이론적 논의를 함께 접할 수 있는 학과로 문화콘텐츠학과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의 축제학 관련 교육은 축제학이 처한 현실 반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연구 결과, 축제 관련 과목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넓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대학이 있으나 문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학과가 대학 내에 독립적으로 개설된 곳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축제학을 문화콘텐츠학의 범주에 넣고 다양한 담론을 이끌기에는 기반 자체가 약하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의 정서를 기반으로 삼고 한국축제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축제이론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학으로서 축제를 문화콘텐츠학이라는 범주에서 특성화하기에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콘텐츠학이 개설된 대학 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축제학 담론 확산의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연구 확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연구 결과 축제가 일상처럼 여겨질 정도로 우리와 친숙하고 보편적인 현상을 보이지만 문화콘텐츠학의 영역에서 축제학을 논하기에 그 기반은 턱없이 약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문화콘텐츠학 자체가 연계전공의 형태나 유사 이름으로 개설된 상태에서 축제 관련 교과를 한두 과목 정도만 다루는 현실에서는 축제학 담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축제학 담론 확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 교과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교과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떤 것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였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목적과 전공 연계성 파악, 문화콘텐츠학을 지도하는 교수진의 축제학에 대한 인식, 문화콘텐츠학을 개설한 대학의 목적 등 토대자료

를 마련하는데 실패했고 답론 확장으로 잊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출신의 입학 전 전공 확인 등은 문화로서의 축제, 콘텐츠로서의 축제, 인접학문과의 축제를 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대학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득이하게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실제 축제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추후 대학과 대학원 교과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학이 어떤 인접학문과 연계해서 축제학을 정립해야 하며 문화콘텐츠학의 분류체계 확립 및 제도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 더 깊은 논점을 마련하여 축제학 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과 문화콘텐츠학 자체의 축제학 담론 마련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일부 대학은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내세운 연구자에 대한 불신 내지는 축제 연구의 가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축제학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표준 데이터를 마련하지 못했다. 기초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소 다른 결로 축제학 담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현대축제가 탄생했던 근현대이행기 축제와 그 기록물을 참조하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학의 범주에서 축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세울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학 정립을 모색하면 현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적 축제 담론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축제이론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하고 이것을 지역축제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제시까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학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와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어 한국축제 정체성 확립의 구체화와 한국축제의 계보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축제학, 문화콘텐츠학, 축제학 담론, 개천예술제, 한국축제 이론, 축제학 계보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2021. 3. 10.). 출처: <https://culturecontents.konkuk.ac.kr/main.do>
- 경남대학교 (2021. 3. 2.). 출처: <https://www.kyungnam.ac.kr/sites/cc/index.do>
- 경상국립대학교 (2021. 9. 1.). 출처: <http://culcon.gnu.ac.kr>
- 고려대학교 (2021. 9. 8.). 출처: <http://sejong.korea.ac.kr/mbshome/mbs/culc/>
- 광운대학교 (2021. 9. 15.) 출처: https://www.kw.ac.kr/ko/univ/social08_5.jsp
- 김선풍 (2000).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松泉 金善豊 博士 華甲紀念論叢. 서울: 월인.
- 김수연 (2012). 지역 어메니티 자원으로 지역축제 및 식물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분석. 인간식물환경학회, 201-207.
- 김정현 (2019). 축제참가자의 특성이 결속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179-199.
- 김호일 (1999). 한국근현대이행기 사회연구. 서울: 신서원.
- 개천예술제 40년사 편찬위원회 (1991). 開天藝術祭四十年史. 개천예술재단.
- 남덕현, 이현식, 김미성, 진인혜, 진대현, 조성애, 전동열, 최경은 (2006). 축제와 문화적 본질. 서울: 한국연구재단.
- 류정아 (2013). 축제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류정아 (2014). 한국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목포대학교 (2021. 10. 1.). 출처: <https://mnumc.mokpo.ac.kr/mnumc/index.do>
- 박건용 (2004).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문학의 카니발화. 독어교육 31, 297-305.
- 복성규 (2012). 프랑스 예술 문화교육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41, 57-85
- 상명대학교 (2021. 8. 1.). 출처: <https://history.smu.ac.kr/history>
- 상지대학교 (2020. 10. 3.). 출처: <https://www.sangji.ac.kr/mooncon/index.do>
- 서경대학교 (2020. 9. 10.). 출처: <https://cc.skuniv.ac.kr/>
- 신승환 (2019).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 인문과학 116, 167-195.
- 아주대학교 (2020. 8. 16). 출처: <http://culture.ajou.ac.kr/culture>
- 안영숙 (2021). 한국현대축제의 효시 개천예술제 재맥락화로 축제이론을 세우다. 서울: 지식과 감성.
- 양도원 (2006).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 과정 연구1-어원과 고대사회의 축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8, 165-186.
- 에든버러축제 (2021. 4. 20). 출처: <https://www.edinburghfestivalcity.com>
- 유기준 (2003). 백제문화제 반세기의 현황과 평가에 관한 연구-공주의 백제문화제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32, 99-114.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0). 연극연출이론 변용을 통한 축제이론 정립.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현주 (2017). 도시예술로서의 미디어 파사드-문자, 이미지, 맵핑, 혼합현실. 인문과학 109, 91-112.
- 윤용혁 (1996). 백제문화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백제문화25, 145-166
- 이봉석 (1999). 신라문화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주연구 8, 159-174.
- 이상섭 (2008). 인문학의 전망: 대화를 위하여. 인문과학 87, 1-18
- 이훈, 김미정 (2011). 한국 축제사-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 481-499.
- 인천가톨릭대학교 (2020. 9. 26). 출처: <https://ac.iccu.ac.kr/default.php>
- 인하대학교 (2020. 9. 20). 출처: <https://culturecm.inha.ac.kr/culturecm>
- 전남대학교 (2021. 9. 15). 출처: <https://ccd.jnu.ac.kr/ccd/index.do>
- 전동렬 (2005). 독일 중세와 근대 카니발의 사회적 기능. 독일언어문학 29, 381-403.
- 조성애 (2005). 축제와 신화의 서사구조: 축제의 거인성과 거인 신화-유럽축제와 한국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5, 277-294.
- 천현순 (2010). 독일의 축제문화와 지역의 정체성-퀵른 카니발축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 469-484.
- 최락인 (2011). 지역문화축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155-181.
- 청주대학교 (2020. 11. 8.). 출처: <https://www.cju.ac.kr/cjccs/index.do>
- 한양대학교 (2021. 10. 1). 출처: <http://contents.hanyang.ac.kr>
- Cassirer, E. (1944). *An Essay on Man: An Interpretation to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urner, V. (1982), Introduction. In V.Turner(Ed.). *Celebration: Studies in Festivity and Ritual*, 7-9.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학의 영역에서도 한국축제를 하나의 ‘축제학’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學)’으로서의 축제학이 정립되려면 이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축제학 논의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문화콘텐츠 연구영역에서 축제학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학의 관점에서 한국축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한국축제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이론에 대한 다양한 담론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학 자체에서도 축제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될 정도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이것을 축제학 담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과목을 다루는 빈도는 적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문화콘텐츠학 관련 대학원 진학 연구자들의 이전 전공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축제학의 확고한 정립을 문화콘텐츠학에서 세우기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문화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가속화되었던 상황 속에 한국축제가 전통축제 → 근현대이행기축제 → 현대축제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점에서 논의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학’으로서의 축제학 가능성을 문화콘텐츠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지역문화 전반을 축제 대상으로 삼았던 개천예술제에서 축제학 역사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기한 일련의 문제는 축제 연구자들이 한국축제에 해외축제와 다른 결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면 한국축제에도 한국축제만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 및 아우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콘텐츠학 영역에서 축제를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한국축제를 ‘축제학’이라는 분과학으로 다루는 토대가 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Discourses on Festival Studies Centered on Cultural Content Studies

An, youngsu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in a position that the Korean festival should be established as a "festival science"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 studies. In order for festival science as a "academic" to be established, a theoretical foundation needs to be prepared, and discussions on festival science that can be specialized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 need to be more active than now.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intensively deal with festival studies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 research that seeks various ways to utilize them.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estival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ntent studies and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and to prepare various discourses on festival theory based on Korean festivals. However, even in cultural content studies itself, there are some areas where education and research on festival studies are not satisfied.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revealing this situation to the surface.

If festival researchers accept that Korean festivals are different from overseas festivals, they can find that Korean festivals also have their own history, identity, and aura. It is an extension of this that this study understands the current status of festival studies-related education at domestic universities to establish festival studies. In addition, it is in the same context to select Gaecheon Arts Festival as a festival model to identify problems and present the need for discourse of Korean festivals through examples. And it is also a process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festival to settle as a discipline. The series of problems rai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discourse that suggests the need to treat festivals as a branch science.

[Keywords] Festival Studies, Culture Contents Studies, The Discourse of Festival Science, Gaecheon Arts Festival, Korean Festival Theory, The Genealogy of

Festival Science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10일 /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4일

【저자연락처】 aysuk2002@hanmail.net